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경희¹⁾ · 이정린²⁾ · 박복남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중·고교 시절 목표는 오직 대학진학에만 있어 왔고, 대학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배우게 될 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대학생활은 여러모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 시킬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 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김은정, 1992). 그러나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과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성적이나 취업,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학교적응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간호학생의 경우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이 학교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이수할 학과목의 선택, 시간 관리, 동아리 활동, 교수나 교수들과의 인간관계, 진로선택에 따른 취업준비 등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대학생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요구 받기 때문에 대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양현정, 2003). 실제로 대학의 학생생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의 학생(45.0%)들이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다(김은정, 199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었더라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면 문제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스로 유능하지 않다고 지각하면 어려운 사건에 접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회피하거나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상호작용을 갖는다(Kliewer & Sandler, 199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각하게 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통합할 때 내적인 갈등,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갈등상황으로부터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 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의 특성을 보인다(이미경, 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소극적인 대처를 하였다(박민아, 2002).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성취수준의 저하 등의 양상을 나타내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능

주요어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 이 논문은 2011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1)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eong1737@wu.ac.kr)
- 3) 용인송담대학 의료정보시스템과 조교수

투고일: 2011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9일

력에 대해 심한 의심을 갖는 사람,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포기하며 스트레스, 우울,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Printrich & DeGroot, 1990).

2009학년도 기준 전문대학 중 학생의 10.0% 이상이 중도 탈락한 학교는 39개교로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학생 중도 탈락률은 7.7%로 일반대학의 중도 탈락률 4.21%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 국정감사 한나라당 임혜규 의원 제시 자료). 간호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는 없지만, 군입대를 제외하고도 적지 않은 탈락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박희민(2009)의 전문대학생 중도탈락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적, 학과만족도, 대학만족도, 전공적응도, 교우관계가 중도 탈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다른 학과들은 입학초기에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전공에 대한 탐색기간을 갖는 데 비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입학 할 때부터 전공영역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스스로 전공을 탐색하는 기회는 없고 적응해야 한다. 특히 3년제 간호과의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대학생활 초기부터 시작하여 3년간의 짧은 기간에 심도 있는 전공 학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안지연, 임희경, 2005)를 볼 때 신입생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과의 경우에는 입학하면서부터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간호용어, 기본간호학 및 실습 등의 전공 기초과목을 배우게 되어 용어의 생소함과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 더욱 학과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민소영, 2006). 그러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체 대학생이나 일반대학 신입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일개 3년제 간호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박복남, 박중선, 이정란(2009)만이 있어 대상자를 좀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년제 간호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3년제 간호과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관련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자아존중감(self esteem)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79).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박현숙(1993)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란 인간의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위협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고, 개인 자신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최해림(198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

인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적 차원의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문승태, 2006),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The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번안하여 이은우(2005)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년제 간호과 신입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중소도시 J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I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이었으며, 임의표집된 315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312명이 본 연구에 최종으로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다. 표본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상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0%, 독립변수 10개로 하였을 때 172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312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Franz Faul, 2009).

연구 도구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79).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였으며, 박현숙(1993)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며,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현숙(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다.

●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Shere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S)를 홍혜영(1995)이 번역한 도구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 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해림(1986)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질문지'를 송남옥(200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7.0%가 여학생으로 군복무에 대한 문항과 신입생에게 부적절한 문항인 졸업과 관련한 문항을 제외한 총 5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 수는 각각 학교생활 스트레스 11문항, 가정생활 스트레스 12문항, 친구대인관계 스트레스 14문항, 자기자신스트

레스 13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받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많이 받는다'를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송남옥(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 학교적응

학교적응 측정도구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번안한 도구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영역이며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우(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관련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점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관련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교관련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87.2%, 남학생이 12.8%를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1.20±2.61이었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양친 생존이 83.7%이었으며, 부모가 안계시거나 편부모인 경우가 16.3%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대해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63.5%, 기숙사가 18.3%이었으며, 가정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58.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간호과 입학 동기는 취업이 잘 돼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56.4%이었으며, 적성이 맞아서 15.7%, 부모의 권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2)

Characteristics	Category	n(%)	Range	Mean(SD)
Gender	Female	272(87.2)		
	Male	40(12.8)		
Age(year)	≤ 20	222(71.1)	19-37	21.20(2.61)
	> 20	90(28.9)		
Existence of Parent	Both	261(83.7)		
	One or none	51(16.3)		
Type of residence	Home	198(63.5)		
	Dormitory	57(18.3)		
	Self	50(16.0)		
	Relatives	7(2.2)		
Economic status	Above middle	29(9.3)		
	Middle	183(58.7)		
	Below middle	100(32.1)		

12.8%, 이미지가 좋아서 8.3%, 봉사가 좋아서 5.8%, 성적에 맞추어 1.0%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58.0%, 보통이다 37.5%, 불만족한다가 4.5%이었으며, 학교생활은 만족, 보통, 불만족이 각각 39.7%, 54.2%, 6.1%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60.3%, 보통이다가 37.2%, 불만족한다가 2.5%이었다<Table 2>.

<Table 2> Subject's characteristics related to school

(N=312)

Characteristics	Category	n(%)
Motivation of entrance	Job ¹⁾	176(56.4)
	Aptitude ²⁾	49(15.7)
	Parent's opinion ¹⁾	40(12.8)
	Grades(mark) ¹⁾	3(1.0)
	Charity ²⁾	18(5.8)
	Nurse's image ²⁾	26(8.3)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181(58.0)
	Moderate	117(37.5)
	Dissatisfaction	14(4.5)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124(39.7)
	Moderate	169(54.2)
Satisfaction of nursing	Dissatisfaction	19(6.1)
	Satisfaction	188(60.3)
	Moderate	116(37.2)
	Dissatisfaction	8(2.5)

1): decided by external conditions 2): individual factors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2점(±.50), 자기효능감은 평균 3.35점(±.45), 스트레스는 평균 2.16점(±.55), 학교적응도는 평균 3.34점(±.47)을 나타냈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적응에서는 남학생(3.54±.56)이 여학생(3.31±.4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87, p=.004). 연령에서는 21세 이상의 대상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입학 한 20세 미만의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교적응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거주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40, p=.018), 사후분석 결과 자기집에서 다니는 학생이 자취나 하숙 등 혼자 생활하는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26). 가정형편은 대학생할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0.57, p<.001), 사후 분석 결과 가정형편이 넉넉하다고 응답한 대상자(1.87±.47)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2.11±.56)가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2.34±.51)보다 스트레스를 덜 느꼈다(p<.001), (p=.003).

대상자의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입학동기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경우와 다른 조건에 의해

<Table 3> Degrees of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 school adaptation

(N=312)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School adaptation	
Mean ±SD	Range	Mean ±SD	Range	Mean ±SD	Range	Mean ±SD	Range
3.72±.50	2.1-5	3.35±.45	2.0-4.7	2.16±.55	1.2-4.4	3.34±.47	2-4.5

<Table 4> Level of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 school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12)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School adaptation		
		Mean±SD	t or F	Scheffe	Mean±SD	t or F	Scheffe	Mean±SD	t or F	Scheffe	Mean±SD	t or F	Scheffe
Gender	f	3.71±.50	-0.70		3.36±.46	0.86		2.16±.55	0.73		3.31±.46	-2.87	
	m	3.77±.53			3.30±.46			2.15±.61			3.54±.56		
Age	≤20	3.69±.49	-1.60		3.30±.43	-3.08		2.17.56	0.05		3.32.46	-1.41	
	>20	3.79±.52			3.47±.51			2.16.53			3.40.51		
Existence of parent	both	3.72±.49	0.16		3.36±.45	0.37		2.13±.56	-1.38		3.33±.47	-0.98	
	one or none	3.71±.55			3.33±.48			2.25±.49			3.41±.49		
Type of residence	home(1)	3.67±.49	2.50		3.29±.46	3.40	(1)>(3)	2.19±.55	1.40		3.34±.46	0.54	
	dormitory(2)	3.57±.49			3.40±.44			2.09±.51			3.30±.47		
	self(3)	3.88±.55			3.51±.43			2.06±.57			3.40±.53		
	relatives(4)	3.62±.33			3.36±.22			2.37±.71			3.22±.46		
Economic status	a	3.83±.39	2.11		3.52±.42	2.81		1.87±.47	10.57	a>c	3.45±.43	2.43	
	b	3.75±.51			3.36±.44			2.11±.56			3.37±.45		
	c	3.65±.50			3.30±.50			2.34±.51			3.26±.53		

a: high b: moderate c: low

<Table 5> Level of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 school adaptation of subject's characteristics related to school (N=312)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School Adaptation		
		Mean±SD	t or F	scheffe	Mean±SD	t or F	scheffe	Mean±SD	t or F	scheffe	Mean±SD	t or F	scheffe
Motivation of Entrance	1)	3.69±.50	-1.93		3.32±.45	22.74		2.19±.56	1.78		3.31±.48	-2.01	
	2)	3.82±.50			3.48±.47			2.06±.53			3.43±.45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a	3.84±.51	16.49	a>b	3.47±.45	22.93	a>b	2.09±.57	5.03	a>c	3.51±.43	42.09	a>b
	b	3.59±.38			3.23±.37			2.21±.50			3.14±.39		
	c	3.23±.75			2.80±.48			2.53±.61			2.74±.48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	3.87±.48	14.41	a>b	3.49±.47	15.76	a>b	2.01±.54	10.46	a>c	3.64±.38	69.27	a>c
	b	3.65±.47			3.30±.40			2.22±.53			3.18±.39		
	c	3.32±.52			2.96±.51			2.54±.54			2.77±.52		
Satisfaction of Nursing	a	3.81±.49	8.53	a>b	3.43±.45	8.04	a>b	2.06±.53	6.91	a>b	3.51±.45	41.81	a>c
	b	3.60±.49			3.23±.43			2.29±.56			3.11±.37		
	c	3.37±.39			3.11±.55			2.42±.37			2.65±.36		

a: high b: moderate c: low 1): external conditions 2): individual factors

서 결정한 경우로 범주화한 결과, 자존감은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경우가 3.82점(±.50),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한 경우가 3.69점(±.50)이었으며, 개인적 성향에 의해 결정한 경우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93, p=.055).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성향으로 결정한 경우가 3.48점(±.47),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한 경우가 3.32점(±.45)으로 개인적 성향으로 결정한 경우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74, p=.007). 스트레스는 개인적 성향으로 결정한 경우가 2.06점(±.53),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한 경우가 2.19점(±.56)으로 개인적 성향으로 결정한 경우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1.78, p=.077). 학교적응은 개인적 선호로 결정한 경우가 3.43점(±.45),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한 경우가 3.31점(±.48)으로 개인적 선호로 결정한 경우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01, p=.047).

대상자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F=16.49, p<.001), 자기효능감(F=22.93, p<.001)과 학교적응도(F=42.09, p<.001)가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03, p=.007). 사후분석 결과 교우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p<.001), 자기효능감(p<.001)과 학교적응도(p<.001)가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교우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17).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자아존중감(F=14.41, p<.001), 자기효능감(F=15.76, p<.001), 스트레스(F=10.46, p<.001)와 학교적응(F=69.27,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보다,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한다에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p<.001, p=.018), 자기효능감(p<.001, p=.007)과 학교적응도(p<.001, p<.001)가 높았으며,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p=.050).

전공 만족도에 따라 자아존중감(F=8.53, p<.001), 자기효능감(F=8.04, p<.001), 스트레스(F=6.91, p<.001)와 학교적응(F=48.81,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p=.002), 자기효능감(p<.001)이 높았으며,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보다,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한다에 응답한 대상자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학교적응 수준은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보다(p<.001),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한다에 응답한 대상자 보다 높았다(p=.01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는 정 상관관계를 보이고(r=.439, p<.001, r=.423, p<.001),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32, p<.001).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17, p<.001, r=-.272, p<.001),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정 상관관계(r=.685, p<.001)를 보였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among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school adaptation (N=312)

Variable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Self efficacy	.685***		
Stress	-.317***	-.272***	
School adaptation	.439***	.423***	-.432***

* p<.05, ** p<.01, ***p<.001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적

<Table 7> Predictors of school adaptation

(N=312)

Variables	B	R2	Cumulative R ²	t	p	F(p)
Constant	69.35			14.31	<.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5.08	.268	.268	4.00	<.001	
Stress	-5.39	.108	.376	-5.78	<.001	
Self esteem	3.08	.057	.433	2.28	.024	F=41.43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4.60	.029	.462	4.10	<.001	(<.001)
Satisfaction of nursing	4.23	.022	.484	3.68	<.001	
Gender	3.92	.009	.493	2.63	.009	
Self efficacy	3.61	.007	.501	2.13	.034	

응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성별, 입학동기, 교우관계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는 학교생활만족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우관계만족도, 전공만족도, 성별,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전체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0.1%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교생활만족도가 26.8%로 가장 예측력이 컸으며, 스트레스는 10.8%, 자아존중감은 5.7%,의 예측력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이 0.7%로 가장 낮은 예측력을 나타냈다<Table 7>.

논 의

간호학은 중추적인 건강전문직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능력을 구비하고 간호대상자에게 건강 멘토와 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간호학생은 이러한 역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필요한 역할과 전문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타대학생에 비해 학습량의 과다와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여한 요인들과 관련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요인별로 대학생활에서 수정 가능한 요인과 수정가능하지 않은 요인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중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전략을 세우고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2점이었다. 이는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2009)의 일개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3.57점 보다 약간 높았고, 연구대상자에게서 자존감이 높은 점은 매우 간호계에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시대가 갈수록 간호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것

으로 보이고, 취업의 용이성에 따라 간호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간호과에 합격한 점에 대해 자긍심이 높아진 점이라고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2009)의 일개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3.22점보다 약간 높았으며, 4년제를 포함한 황성자(2006)의 연구에서의 3.52점 보다는 낮아 두 연구의 중간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의 학교들이 3년제 간호대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2.16점이었으며, 학교적응도는 3.34점이었다. 이는 일개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2009)의 스트레스 3.95점 보다 매우 낮았으며, 학교적응도 3.00점 보다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선행연구의 일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4년제 간호대학 신입생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적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여서 앞으로 이를 명료화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가 불만족하는 대상자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왔다.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들의 입학동기가 양승희(2001)의 연구에서 부모의 권고가 28.4%, 취업전망이 45.2%였고, 김명화(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권고가 25.3%이고, 취업전망이 22.3% 이며,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2009)의 연구에서는 스스로가 원해서가 46.8%인데 비해,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부모의 권고는 12.8%에 지나지 않았고, 29.8%가 자신의 적성, 봉사할 수 있어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아서 등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호과를 선택한 것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85.8%정도가 결국 간호과에 진학하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였기에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며,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선택의지와 적성에 맞아 간호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 간호교육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김명화(2008)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에 입학하기 전 간호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간호과에 대한 홍보 및 진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낮게 느낄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현지희(2005)는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한 심리적 기제는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미혜(2008)의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적응을 잘 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연구를 지지한다(박은민,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았으며,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있었는데,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박선영(2003), 이지선(2010)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함께 한다. 전공만족도는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소속된 학과에 대한 만족도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련이 깊는데, 이경희, 권준모(1996)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에도 만족하고 학과 생활에도 만족한다고 하였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온 안지연과 임희경(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에 더욱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에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좀 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별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년제 간호과 신입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26.8%로 가장 예측력이 컸으며, 이는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였으며,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대상자들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그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 홍보 시 보다 친근한 입학동기 부여와 입학 후에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학과적응을 돕는 적절한 전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상담 및 지도활동을 포함 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년제 간호과 신입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중소도시 J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I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과에 신입생이었고, 임의표집된 315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312명의 설문지를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는 선행연구에 비해 높았고, 스트레스는 낮았다. 또한 친구관계, 학교생활 및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고,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 간호과를 스스로 선택한 대상자에서 학교적응을 잘 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였으며, 그 다음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시 전 충분히 홍보하여 학교에 대한 이해와 매력을 심어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입학 후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공학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우며, 동료나 선후배 및 교수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는 상담 및 멘토링제도를 활용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명화(2008). 간호대학생의 자아 정체감, 대인관계 및 적응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1), 55-64.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문승태(2006). 데이터마닝 분석을 통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예측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47-267.

민소영(2006).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5(4), 409-419.

박민아(200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박복남, 박중선, 이정란(2009).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4(2), 153-164.

박선영(200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은민(2001).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현숙(1993). *집단인지오범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

박희민(2009). *전문대학 학생중도탈락 요인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성미혜(2008).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84-96.

송남옥(2004).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 수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안지연, 임희경(2005). 여대생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233-239.

양승희(2001). 일부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3), 376-390.

양현정(2003).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상담연구*, 19, 111-127.

이경희, 권준모(1996). 대학생의 전공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2, 95-112.

이미경(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주.

이은우(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이지선(2010).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임해규(2009). *국정감사 한나라당 임해규의원 제시 자료*

최해립(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현황과 인지 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황성자(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현지희(2005). *대학생의 자의식과 자기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Baker, R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1), 179-189.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84(2), 191-215.

Franz Faul(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Kliewer, W. & Sandler, I. N. (1992).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393-413.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 Pub.

Printrich, P. R. & De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Shere,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Yang, Kyung Hee¹⁾ · Lee, Jeong Ran²⁾ · Park, Boc Nam³⁾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Youngin Songdam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312 nursing students in two schools at J and I city from March 7-11, 2011.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18 program. **Result:**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were higher than previous advanced research showed, self-efficacy was moderate and stress to school life was lower than other studies. School adaptation level was related to satisfaction of friendship, school life and the nursing program. The subjects who have chosen nursing by themselves and male students scored higher in their school adaptation. The greatest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wer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nd stress respectively. **Conclusion:** Inpre-admission, enough information about nursing school life through experience of previous students must be given. Then, a school adaptation program which incorporates counseling and mentoring should be provided for supporting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Key words : self esteem, self efficacy, stress, school adapt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Jeong Ran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344-2, Sinyong-dong Iksan-city, (570-750)

Tel: 82-63-840-1317 Fax: 82-63-840-1319 E-mail: jeong1737@wu.ac.kr